




WP 21-23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

정보제공 및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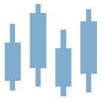
이다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dylee@krihs.re.kr)











KRIHS 국토연구원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필요성 05

02 도시계획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사례 13

03 도시계획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사례 19

04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상 29

05 요약 및 정책제언 35

01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필요성

1) 시민참여의 발전과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등장

■ 시민참여는 '시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참여 방식이나 개입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면 시민참여(또는 주민참여)[1]란 시민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개입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
  - 이승종(1997)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 양재섭·김태현(2011)은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김봉철(2021)은 주민이 행정청의 정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영향을 주는 행위라 정의
- 그동안 연구자들은 참여의 방식이나 시민들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시민참여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왔으며, 이는 참여제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
  - Arnstein(1969)은 시민참여 방식을 참여 수준에 따라 총 8단계로 구분하였고, OECD(2001)는 사회변화에 따른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참여를 모두 고려하여 정보제공형, 협의형, 적극적 참여형의 3가지로 유형화했으며, IAP2(2007)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시민참여를 5단계로 구분

표 1 참여 방식과 영향력에 따른 시민참여 유형 구분

구분	기준	단계적 유형 구분
Arnstein(1969)	참여 방식과 영향력 수준 (권한 부여 정도)	조작(Manipulation) → 치유(Therapy) → 정보제공(Informing) → 컨설팅(Consultation) → 회유책(Placation) → 파트너십(Partnership) →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시민주도(Citizen control)
OECD(2001)		정보제공형 → 협의형 → 적극적 참여형
IAP2(2007)		정보제공 → 협의 → 개입 → 협업 → 권한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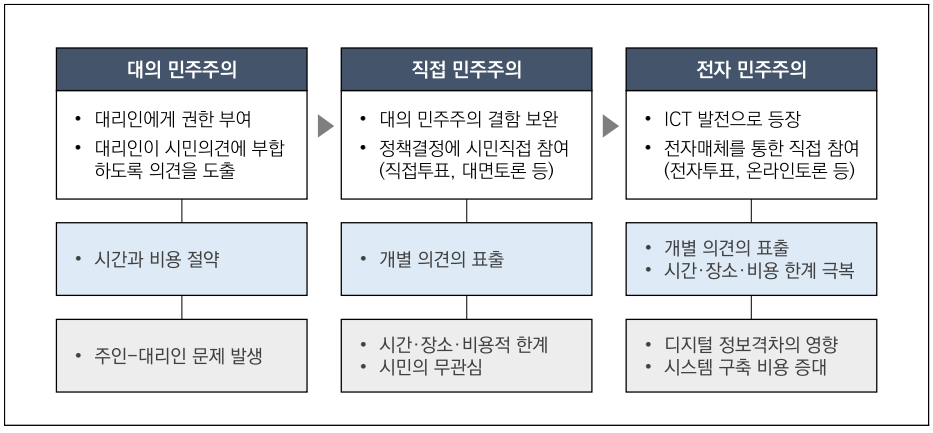
출처: Arnstein 1969, 217; OECD 2001, 15~16; IAP2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1) 시민참여와 주민참여는 유사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주민(住民)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시민(市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가 아닌 시민참여라는 용어를 주로 활용.

■ 시민참여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최근에는 사회적·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시민참여의 범위와 방식이 더욱 확장되는 추세

-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공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시민참여 과정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우리 사회는 대리인을 선출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민참여제도 등을 마련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개념을 일부 도입
  -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견보다 특정 계층이나 정치적 입장이 우선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김찬동·이정용 2014, 29)
  -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다양한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
- 나아가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자 민주주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여 주목을 받는 상황
  -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뉴미디어가 발전하며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전자 매체를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고 블록체인 기법과 같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김지수·김건위 2020, 16)
- 이렇듯 사회·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고, 특히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시민참여는 직접 투표와 대면 토론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전자투표나 온라인 토론 등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확장 중

그림 1 민주주의 형태에 따른 시민참여 방식의 변화



출처: 김지수·김건위 2020, 17의 〈표 2-1〉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사회적 요구가 다변화되며 다양한 참여제도들이 도입·운영되어 왔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 급격히 부상

- 공공 행정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법적·비법정 시민참여제도를 도입·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 그 외 분야별 참여제도 등 법률로 규정된 시민참여제도들이 마련되는 한편,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설문조사,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토론회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참여제도들이 활발히 시도되는 상황
- 또한, 최근에는 ICT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 중요한 시민참여 도구의 하나로 부상하여 곳곳에서 도입·운영 중
  -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란 정책 수요자인 시민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공공 행정과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논의의 장(場)을 지칭
  - 현재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중앙정부와 다수의 지자체에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 플랫폼은 공공의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데 목적을 둠

표 2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주체	명칭	기능 및 구성요소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정책참여(설문, 심사 등), 열린소통포럼, 참여창구 안내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참여하기(시민제안, 시민토론, 서울시가 묻습니다), 서울시민회의
대구시	토크대구	제안, 토론, 투표, 설문, 오픈소스 소개
인천시	인천은소통e가득	시민청원, 시민참여, 토론 Talk Talk, 시민제안,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
대전시	대전시소	시민제안, 시민토론,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실행
광주시	바로소통광주	알아보기, 제안 공감, 토론참여, 시민에게 묻습니다
울산시	시민 다듬이방	시민제안, 시민토론, 실행, 울산시가 묻습니다, 소통참여단
경기도	경기도의 소리	제안(일본제안, 공모제안, 제안육성단, 국민생각함), 발안, 청원, 참여, 민원
충청남도	만사형통충남	도민제안, 도민참여예산, 충남도가 묻습니다, 알립니다
전라북도	전북 소통대로	자유제안, 공모 이벤트, 전라북도가 묻습니다, 도민활동
전라남도	소통인전남	제안광장(제안, 토론, 실행), 청원광장, 소통광장
경상남도	경남1번가	도민이 제안합니다, 경남도가 묻습니다, 찾아가는 경남1번가, 정책다듬이 요청
제주도	가치더함	참여하기(제안제시, 공감투표, 프로젝트), 경진대회, 열린소통

출처: 각각의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도시계획 시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전문성과 기술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와 달리 수요 맞춤형의 실효성 높은 계획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

- 오랜 시간 도시계획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로 인식되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계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참여가 제한됨
-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중시하는 협력적 계획이론이 등장한 후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참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
  - 이전에는 전문성을 가진 계획가를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합리적 계획이론이 우세하게 작용
  - 협력적 계획은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며, 계획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이태희 2015, 152)
- 현재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목적으로 시민참여 절차가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참여 방법은 〈표 3〉과 같이 ❶ 계획 수립 시의 직접 참여, ❷ 계획에 대한 제안, ❸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의견제시 정도로 구분 가능

- 관련 법에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공청회, 계획안 열람 및 의견청취,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제안 등의 시민참여제도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의 공청회와 계획안 열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제안(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과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 그 외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 포함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의견청취 제도 등을 포함
- 한편, 최근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참여제도 외에도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각종 도시정책의 도입·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이 활용되는 추세
  -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지역 이슈를 발굴하거나 미래상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노력
  -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

표 3 도시계획 시민참여제도의 유형 구분

구분	법정 제도	비법정 제도
❶ 계획 수립 시의 직접 참여	–	• 이슈 및 미래상 등 설문조사 • 도시기본계획 주민계획단
❷ 계획에 대한 제안	• 구역 지정 및 계획 입안 제안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 주민공모
❸ 공개 정보에 대한 의견제시	• 공청회 • 열람 및 의견청취	• 주민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출처: 저자 작성.

■ 다만, 현행 도시계획 참여제도는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참여방안이 경직적이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 존재

- **(정보제공)** 행정청에서 도시계획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제공하더라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라 계획에 대한 이해와 의견제시 불가(이다예 외 2021, 31)
  -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계획 정보를 간략히 알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신문이나 관보 등 활용성이 낮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져 시민들의 정보 습득이나 의견제시가 제한됨
  - 시설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정비사업, 재생사업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계획임에도 내용이나 진행 절차를 알기 어렵고, 도시계획 정보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계획안과 도면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됨
- **(참여방안)** 현행 도시계획 참여제도는 참여할 수 있는 계획 및 정책의 범위가 좁고 참여 대상도 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움(이다예 외 2021, 29-30)
  - 현행 참여제도는 대부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계획 수립 주체인 공공과 참여 주체인 시민 모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만이 참여하는 형태
  - 참여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참여하더라도 의견 반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기 어려운 구조
-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참여 제한에서 더 나아가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획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이 페이퍼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 참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제안하고자 함

- 현재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활용은 미흡

3)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개념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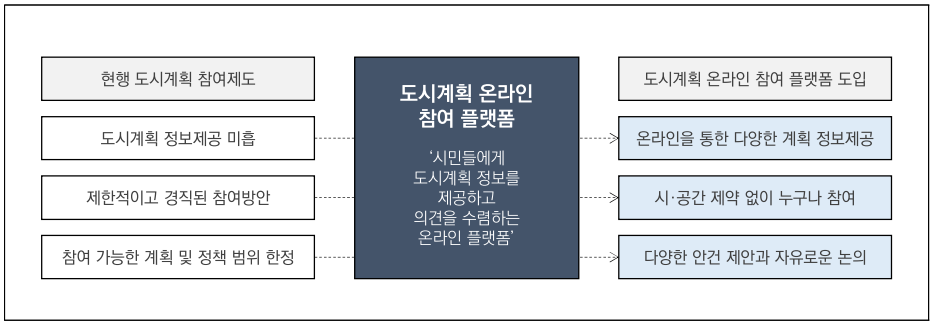
■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란 '시민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 제공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

- 플랫폼(Platform)은 구획된 땅을 의미하는 'Plat'과 형태를 의미하는 'Form'의 합성어로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한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며(윤상진 2019),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인식 가능
- 이 페이퍼에서는 김지수·김건위(2020, 44-45)가 제시한 광의의 참여 플랫폼 정의에 기반하여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
- 즉,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도시계획 분야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부는 도시계획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민들은 관련 정책이나 지역 이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며 논의하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의미

■ 이러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현행 도시계획 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 가능

- 온라인 플랫폼은 접근이 쉽고 시민과 공공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정보공유 미흡, 시간·비용 부족에 따른 참여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확대되는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
- 주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 수요를 파악하거나 특정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그림 2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개념과 필요성



출처: 저자 작성.

■ 이 페이퍼에서는 적정 기능을 갖춘 도시계획 참여 플랫폼을 구상하기 위해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를 선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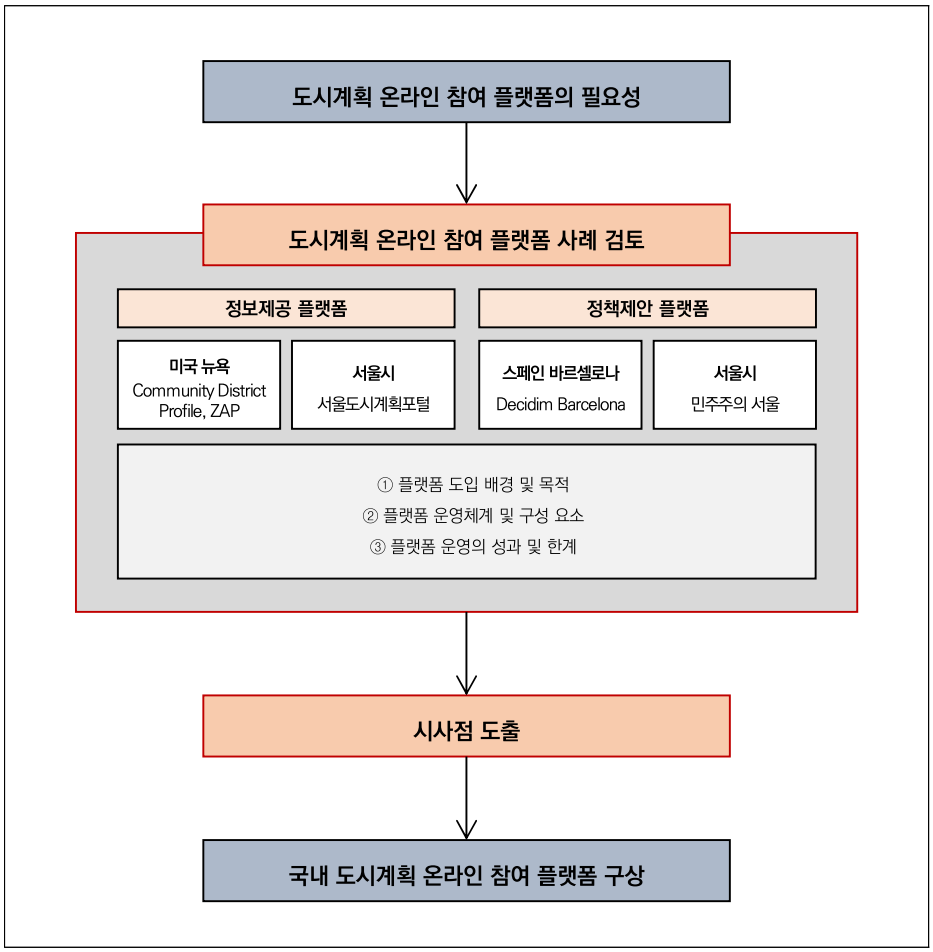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도영·신은지(2017), 김지수·김건위(2020), 황현숙 외(2020) 등 다수의 연구자가 다양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사례를 검토하고 도입, 개선방안을 제시
  - 김도영·신은지(2017)는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수원시의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상했고, 김지수·김건위(2020)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법·제도 및 시스템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황현숙 외(2020)는 경기도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여 플랫폼을 구상
  -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의 형식과 운영에 대해 고민했으나, 대부분 공공 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 도시계획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는 못함
- 이 페이퍼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도시계획 분야에 초점을 두고 참여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려 하므로 기존에 다뤄져 온 '정책제안' 측면의 플랫폼 사례와 더불어 '정보제공' 측면의 플랫폼 사례도 함께 검토한 후 플랫폼 구상의 방향을 제안
  - 도시계획 정보제공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참여가 아닌 정보 전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시민참여의 전제조건이 충분한 정보제공인 만큼 이 페이퍼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플랫폼 역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보고자 함
- 이 페이퍼에서는 선행연구와 기사를 참고하여 정보제공과 정책제안 관련 국내·외 온라인 참여 플랫폼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
  - **(정보제공)**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뉴욕시의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Community District Profile)'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 정보를 공개하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사례로 선정
  - **(정책제안)** 강윤재(2020), 김도영·신은지(2017), 김지수·김건위(2020), 안용준 외(2018) 등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와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을 사례로 선정
- 사례별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자 '❶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❷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❸ 플랫폼 운영의 성과 및 한계'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분석 진행
  - 먼저 사례 지역의 시민참여 환경과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등을 파악한 후, 운영체계와 구성요소 분석을 토대로 시민참여 및 정책 반영 구조를 판단하며,
  - 마지막으로 참여 플랫폼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표 4 온라인 참여 플랫폼 사례 분석의 대상과 내용

구분	분석 대상		분석 내용
	국외	국내	
정보 제공	• 미국 뉴욕시 –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 (Community District Profile) –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	• 서울특별시 – 서울도시계획포털	•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 플랫폼 운영체계 • 플랫폼 구성요소 • 성과 및 한계 등
정책 제안	•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데시딤 바르셀로나 (Decidim Barcelona)	• 서울특별시 – 민주주의 서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연구의 흐름



출처: 저자 작성.

02 도시계획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사례

미국 뉴욕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Community District Profile)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

1)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 플랫폼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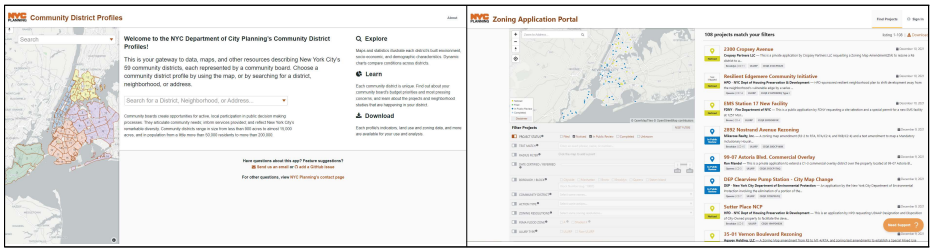
- 뉴욕시 도시계획부서(Department of City Planning)는 기술 발전에 맞춰 현대적 개발 관행을 만들고자 최근 몇 년간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
  - 도시계획부서는 2017년 6월에 플래닝랩스(Planning Labs) 팀을 설립하여 도시계획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영향력 있는 도구들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했고[2],
  - 이들은 ZoLA(Zoning and Land Use Application), Population FactFinder, Community District Profile, ZAP(Zoning Application Portal) 등을 개발
- 뉴욕시는 이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하고, 참여 방식을 안내하며 시민참여 촉진 도구로 활용[3]
  - 특히,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Community District Profile)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4]은 커뮤니티 구역별 도시계획 정보와 시의 모든 토지이용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시민참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5]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기에 연구에서는 이 두 사례에 집중하고자 함

■ 플랫폼 도입 목적

-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Community District Profile)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은 도시계획 지원 도구로서 개발되었고, 현재는 각종 도시계획 데이터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하여 누구든지 정보를 쉽게 접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2) NYC Planning LABS. https://labs.planning.nyc.gov/about (2021년 12월 10일 검색).
3) NYC Planning. https://www.goodurbandesign.nyc/we-are-committed-to-improving-community-engagement (2021년 12월 10일 검색).
4) ZAP(Zoning Application Portal)의 경우 직역하지 않고 실제 기능을 참고하여 '토지이용 정보 포털'로 번역함.
5) 뉴욕시의 경우 59개 커뮤니티 구역별로 커뮤니티 보드라는 공식참여기구를 두어 시민들이 다양한 도시계획 안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특히 토지이용 변경이 요구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

그림 4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 홈페이지



출처: Community District Profile. https://communityprofiles.planning.nyc.gov; ZAP. https://zap.planning.nyc.gov/projects (모두 2021년 12월 10일 검색).

2)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 플랫폼의 운영 주체와 정보제공 대상

- 두 가지 플랫폼의 운영 주체는 뉴욕시 도시계획부서이며, 관계자 외에도 일반 시민 누구나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접근 가능
- **(정부)** 뉴욕시는 커뮤니티 구역별 도시계획 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며 공식참여기구인 커뮤니티 보드를 통한 참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커뮤니티 구역 프로필), 토지이용 프로젝트의 정보와 진행단계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참여 환경을 조성(토지이용 정보 포털)
- **(시민)** 일반 시민들은 플랫폼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를 접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

■ 플랫폼의 기능과 구성요소

-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 커뮤니티 구역별 기초정보와 도시계획 정보제공 기능
  - ❶지표(Indicators), ❷건설환경(Built Environment), ❸범람원(floodplain), ❹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❺프로젝트(Projects), ❻자료(Resources) 메뉴로 구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종합적 이해 가능
- **(토지이용 정보 포털)** 기관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토지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 1970년부터 추진된 모든 토지이용 프로젝트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 과거의 토지이용 변경 사항이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6]
  - 프로젝트 지도와 상세한 설명, 진행단계와 관련 문서를 제공하며, 진행단계, 사업 명칭, 위치, 승인 시기, 토지이용 신청 유형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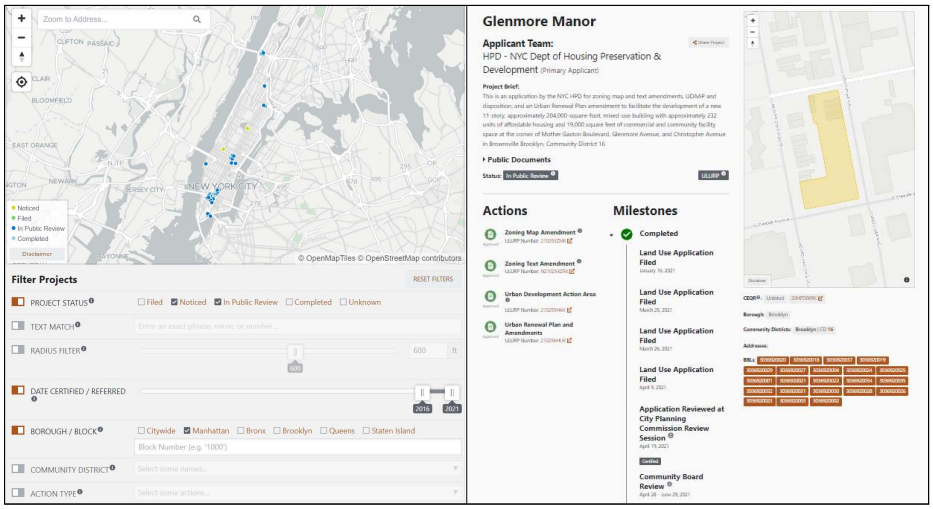
6) NYC Planning LABS. https://labs.planning.nyc.gov/projects/zap-search (2021년 12월 11일 검색).

표 5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의 세부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지표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임대료, 범죄, 실업 등), 도시서비스(공원접근성, 출퇴근시간 등) 특성
건설환경	조닝 현황, 토지이용 현황, 시설 현황
범람원	인구 및 건축 관련 범람 피해 위험 정보
커뮤니티 보드	커뮤니티 보드 웹사이트 및 이메일 안내, 예산요구서(참여예산과 유사) 자료
프로젝트	토지이용 프로젝트 정보(ZAP 연계), 커뮤니티 관련 계획 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자료	각종 통계 및 공간 데이터 제공

출처: Community District Profile. https://communityprofiles.planning.nyc.gov (2021년 12월 11일 검색) 참고해 저자 작성.

그림 5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과 프로젝트 정보



출처: ZAP. https://zap.planning.nyc.gov/projects (2021년 12월 11일 검색).

3) 성과 및 한계

■ 플랫폼 운영의 성과

- 일반 대중에게 각종 계획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하고, 해당 플랫폼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7] 시민참여의 전제조건인 충실한 정보제공을 가능케 함

■ 플랫폼 운영의 한계

- 정보제공 플랫폼인 만큼 시민들이 각종 계획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참여 기능이 부재하고 참여 시스템으로의 연계가 미흡하여 참여의 실질적 실현에는 한계 존재

7) NYC Planning Digital. https://medium.com/nyc-planning-digital/tagged/product-updates (2021년 12월 11일 검색).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1)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 플랫폼 도입 배경

- 2000년대 초반, 서울시는 민주사회로의 전환으로 행정정보 개방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산재한 도시계획정보를 종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8],
-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행정문서 관리와 업무 관계자 간 정보 공유가 한계에 부딪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
- 서울시에서는 2006년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운영했고, 2011년 2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정보를 제공[9]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과 온라인 개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도시계획포털은 이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플랫폼 도입 목적

- 서울도시계획포털은 각종 도시계획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그림 6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2021년 12월 12일 검색).

8) 서울 정책아카이브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설명글.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736 (2021년 12월 12일 검색).
9) 서울 정책아카이브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설명글.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736 (2021년 12월 12일 검색).

2)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 플랫폼의 운영 주체와 정보제공 대상

- 서울도시계획포털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 누구나 온라인 페이지로 접속하여 도시계획 정보 습득 가능
- **(정부)** 서울시는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계획 정보를 개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가 있는 경우 플랫폼 내 의견청취 메뉴나 연계된 민원제안 사이트(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시민)** 시민들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를 접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

■ 플랫폼의 기능과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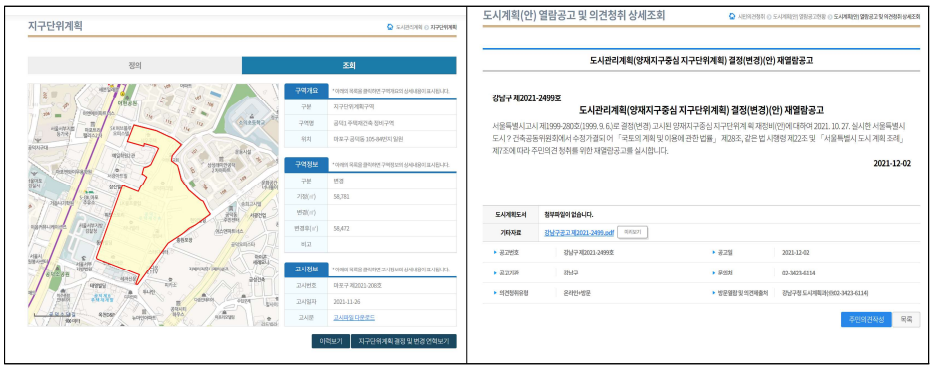
- **(정보제공)**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 정보와 관련 문서 제공
  - 도시계획 개념 설명, 주요기본계획(서울플랜, 생활권계획, 경관계획 등)의 계획서 제공,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유형별(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정보 조회(사업명, 위치, 면적, 고시 이력 등) 기능 제공
- **(의견청취)** 관련 법상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제시 기능 제공
  -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안)의 열람을 공고하고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표 6 서울도시계획포털의 기능과 구성요소

기능		구성요소
정보 제공	도시계획 개념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서울도시계획헌장', '정책비전', '서울의 도시계획' 등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제공
	주요기본계획	'상위계획', '서울플랜', '서울생활권계획', '경관계획', '도시빛 기본계획', '역사도심기본계획' 등 서울시의 각종 기본계획 계획서 제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전체 목록 및 정보제공
의견청취		관련 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안건 목록을 자치구별로 제시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2021년 12월 12일 검색)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서울도시계획포털의 도시계획 정보제공 및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2021년 12월 12일 검색).

3) 성과 및 한계

■ 플랫폼 운영의 성과

- 모든 도시계획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의견 작성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간·비용적 제약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플랫폼 운영의 한계

- 모든 도시계획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제공되는 정보가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아니므로 참여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별다른 설명 없이 계획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관리계획의 경우 사업 명칭과 면적 등의 일반 개요와 결정 고시문 형태로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이슈와 추진 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움
- 현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민참여 기능은 법률로 정한 주민의견청취 제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제시 외의 제안이나 토론은 여전히 실현되기 어려움

03 도시계획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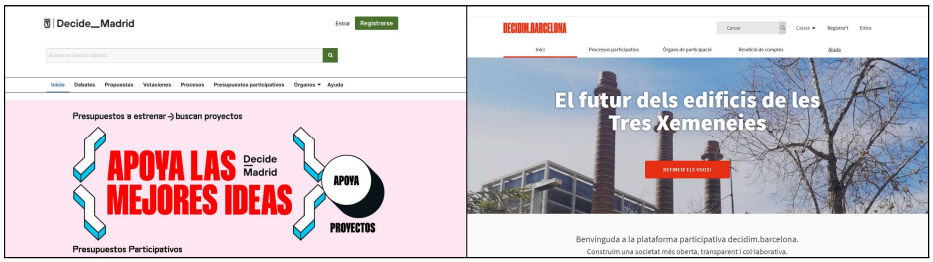
스페인 바르셀로나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

1)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 플랫폼 도입 배경

- 스페인에서는 정치적 부패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변화가 바탕이 되어 공공 행정에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 발생
  - 정치적 부패, 금융 위기, 사회 불안 등으로 촉발된 스페인의 2011년 5월 15일 시위 이후 시민들이 진보 정당을 선택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정보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 추구(Peña-López 2017; Smith and Martin 2020)
  -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기술정치(technopolitics)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참여 플랫폼 구상(Smith and Martin 2020)
- 2015년에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 처음 등장하였고 현재는 다수의 지방정부로 확대
  - 2015년 9월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2016년 2월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가 개설되었고 현재는 많은 지방정부에서 유사한 플랫폼을 운영 중
  -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참여 플랫폼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전자는 참여예산에 더욱 집중하는 반면, 후자는 도시계획 및 정책 결정에 특화(Smith and Martin 2020)

그림 8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 홈페이지



출처: Decide Madrid. https://www.decide.madrid.es; Decidim Barcelona. https://www.decidim.bardelona (모두 2021년 12월 7일 검색).

■ 플랫폼 도입 목적

- 데시딤(decidim)은 '우리는 선택하다(we decide)'라는 뜻으로 명칭 그대로 시민들이 바르셀로나의 주요한 공공 정책들을 결정하도록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
- 데시딤 바르셀로나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시민 제안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기본계획(Pla d'Actuació Municipal: PAM)과 지구계획(Programes d'Actuacióndels Districtes: PAD) 등 도시계획 참여의 장으로서 기능
  - 바르셀로나는 도시계획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통이 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참여 계획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Smith and Martin 2020)
  - 데시딤 바르셀로나의 경우 처음에는 시의 기본계획(PAM)과 지구계획(PAD) 수립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됐으며(Ajuntament de Barcelona 2019a, 9), 플랫폼에서 진행된 첫 번째 참여 프로세스가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외 사안들 역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밀접

2)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 플랫폼의 운영 주체와 참여 대상

- 데시딤 바르셀로나의 운영 주체는 바르셀로나 시의회이며, 시의회와 관련 기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론·지지할 수 있음
- **(정부)** 시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참여기관(òrgans de participació)으로 등록하여 시민들과의 공식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안건을 게시할 수 있으며,
- **(시민)** 일반 대중은 개별 참여자로 등록하여 정책 제안, 제안 지지, 토론 참여, 설문조사 응답, 참여예산 투표, 대면회의 참여 신청 수행(Ajuntament de Barcelona 2019a, 10)
  - 누구나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제안의 검토와 실행을 위한 지지(support)는 정책 실행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는 바르셀로나 시민만이 수행할 수 있음[10]

■ 플랫폼의 기능과 구성요소

- 데시딤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시민참여 규정에 제시된 주요 시민참여 방안을 온라인 상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추고 있음
  - 바르셀로나 시민참여 규정(2017)은 ❶참여 프로세스(Processos participatius), ❷참여기

10) Decidim Barcelona. https://www.decidim.barcelona/pages/per-que-no-puc-donar-suport (2021년 12월 8일 검색).

관(Òrgans de participació), ❸시민 발의(Iniciatives ciutadanes), ❹시민협의(Consultes ciutadanes) 등의 시민참여제도를 명시[11]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❶참여 프로세스: 토론, 대면회의, 제안 수집 및 지원, ❷참여기관: 의제, 토론, 관련 문서, ❸시민 발의: 제안한 안건의 승인을 위한 전자 서명 수집, ❹시민협의: 전자투표 등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구현해야 함[12]

- 데시딤 바르셀로나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참여 프로세스**'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설문조사, 제안, 대면 및 온라인 토론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
  - 참여 프로세스는 특정 안건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제안된 내용을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안건에 따라 구체적인 참여 방식(활동)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플랫폼상에 참여를 위한 창구(공론장)를 조성하고 운영
  - 참여 프로세스 안건은 시의회의 결정이나 시민 발의를 거쳐 정하며(Ajuntament de Barcelona 2019b, 10-12), 2021년 12월까지 72개의 참여 프로세스가 등록됨
  - 다만, 기본계획과 예산 결정, 특정 지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1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사항, 주요 도시계획, 특정 시 조례와 규정 등을 결정할 때는 필수적으로 참여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Ajuntament de Barcelona 2019b, 19)

- 그 외 **참여기관**, **시민 발의**, **시민협의** 기능은 참여 프로세스와 긴밀히 연계되어 작동
  - 플랫폼상의 참여기관 기능은 지역·주제별 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상설 채널을 지칭하며, 참여 프로세스 진행 시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 해당 상설 채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회의 창구를 개설
  - 시민 발의는 참여 프로세스의 생성을 위한 제안 제도이며, 시민협의는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투표 제도로서 참여 프로세스 안에서 수행되기도 함

표 7 데시딤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주요 참여 프로세스 목록

주제	기간	플랫폼을 통한 참여 방식
바르셀로나 참여예산	2020.02.02.~2023.12.31.	시민투표
2020-2023 기본계획(PAM)	2020.02.04.~2023.05.31.	정부 제안 평가, 대면회의 신청
2021-2030 환경계획	2021.02.15.~2021.12.31.	정책제안, 의견제시, 대면회의 신청
Mar Bella 해안 개발계획	2021.09.30.~2022.02.28.	정책제안, 의견제시, 대면회의 신청
Montjuïc 박람회장 토지이용 결정	2021.10.25.~2022.01.31.	대면회의 신청
Ronda de Dalt 활용 용도 결정	2021.11.08.~2022.01.31.	대면회의 신청

출처: Decidim Barcelona. https://www.decidim.bardelona (2021년 12월 9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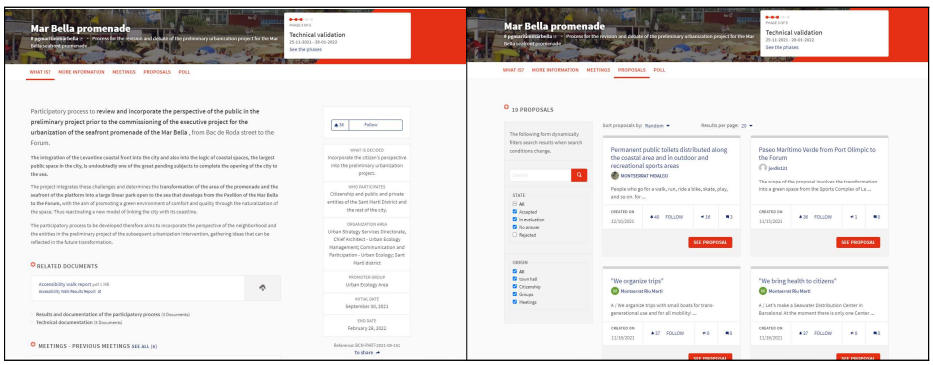
11) 2017년에 승인된 바르셀로나 시민참여 규정(Reglament de Participació Ciutadana)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021년 12월 현재 바르셀로나 시민참여 규정 개정 절차 진행 중.

12) 2021년 바르셀로나 시민참여 규정 개정안(https://ajbcn-decidim-barcelona.s3.amazonaws.com/decidim-barcelona/uploads/decidim/attachment/file/12496/Cap%C3%ADtol_8.pdf, 2021년 12월 9일 검색)을 참고하여 작성.

■ 시민 제안 및 의견의 반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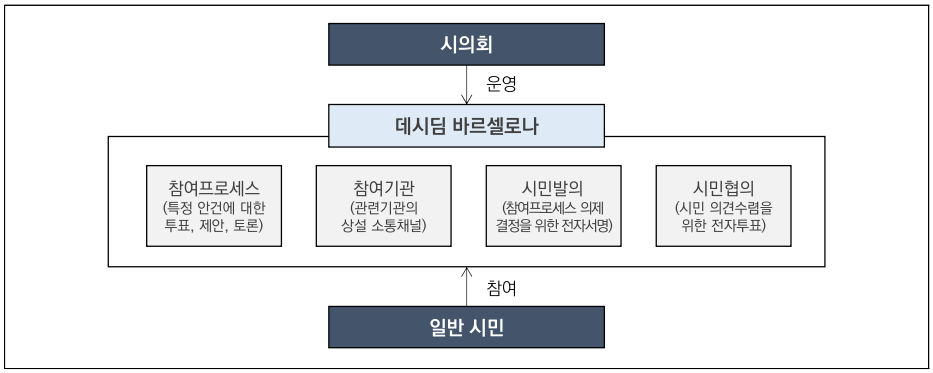
- **(논의 안건 제안)**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시민 발의 제도를 통해 참여 프로세스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프로세스 안건으로 등록
  - 18세 이상의 바르셀로나 시민 3인 또는 하나 이상의 법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2~4개월 내에 충분한 수(도시 차원의 안건은 최소 9천 명, 하위 안건은 차등적으로 적용)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함(Ajuntament de Barcelona 2019b, 16-17)
-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참여 프로세스 등록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제공 → 토론 → 종합 → 모니터링' 절차를 거쳐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Ajuntament de Barcelona 2019b, 14-15)
  - 1단계, 정보제공: 플랫폼상에 해당 프로세스의 단계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논의할 주제와 관련된 각종 문서 제공
  - 2단계, 토론: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제안 항목을 생성하고 토론과 지지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120일 정도 소요
  - 3단계, 종합: 토론 결과를 종합하고 기술적·행정적 측면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며, 결정된 정책의 수행 방법과 수단을 지정, 60일 정도 소요
  - 4단계, 모니터링: 수행 기간을 제시하고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
  - 한편, 참여 프로세스 진행 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실현을 보장하는 보호위원회도 운영(Ajuntament de Barcelona 2019b, 20-23)

그림 9 데시딤 바르셀로나에 등록된 참여 프로세스의 안내와 의견수렴 창구(공론장)



출처: Decidim Barcelona. https://www.decidim.bardelona (2021년 12월 9일 검색).

그림 10 데시딤 바르셀로나의 운영체계와 구성요소



출처: 저자 작성.

3) 성과 및 한계

■ 플랫폼 운영의 성과

- 데시딤 바르셀로나는 2019년 기준 1만 3천 개의 제안이 등록되고 1천 3백여 회의 대면 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Ajuntament de Barcelona 2019a, 3)
  - 또한, 제안에 대한 지지는 19만 건 정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반하여 9천 개 이상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Ajuntament de Barcelona 2019a, 3)
-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정책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도시계획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루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짐
  - 주요 도시계획을 참여 프로세스로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제안과 토론 등 모든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처음 진행된 참여 프로세스인 2016-2019 기본계획의 경우 10,860건의 시민 제안이 있었고, 17만 7,660명이 지지하였으며 5,453건의 결과가 만들어짐[13]
- 스페인의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남미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며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Ajuntament de Barcelona 2019a, 4)

■ 플랫폼 운영의 한계

- 바르셀로나 총인구(160만 명)에 비해 플랫폼 참여 인원이 적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
  - 2019년 기준 3만 2천 명 정도의 시민이 등록(Ajuntament de Barcelona 2019a, 3)

13) Decidim Barcelona. https://www.decidim.barcelona/processes/pam (2021년 12월 9일 검색).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1)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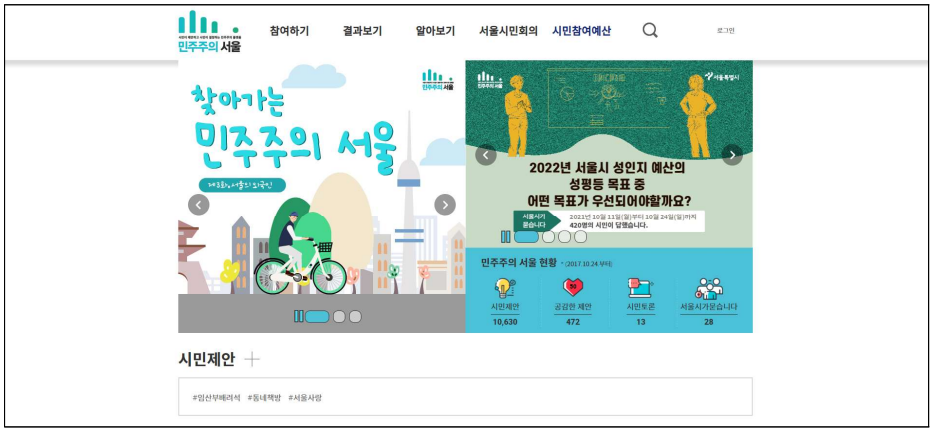
■ 플랫폼 도입 배경

-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 '빠띠'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17년에 시민 제안 및 결정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민주주의 서울을 개발[14)]
  - 이들은 2015년 촛불시위 때 광장에서 표현된 민주주의가 일상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고, 누구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상
  - 서울시에는 2006년부터 운영된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으나 시민 제안을 서울시에서 받는 일방적 방식으로 시민과 공공, 시민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기에 이와 다른 형태를 고민

■ 플랫폼 도입 목적

- 2017년 10월에 시작한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서울의 공론장'이라는 소개와 같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의 '정책 제안 - 결정 - 집행' 과정 안에서 시민들의 역할을 더욱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15)]

그림 11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출처: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 (2021년 12월 13일 검색).

14)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https://medium.com/parti-xyz-developers (2021년 12월 14일 검색).
15)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https://medium.com/parti-xyz-developers (2021년 12월 14일 검색).

2)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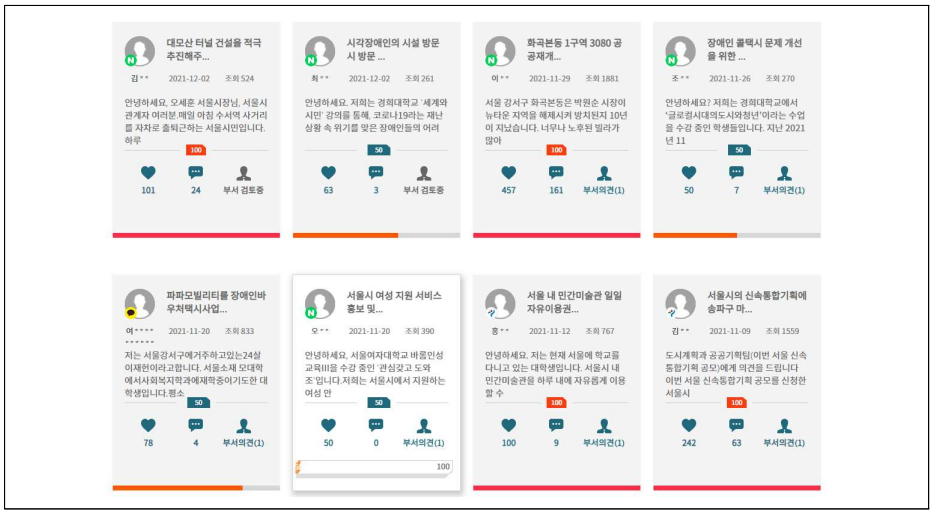
■ 플랫폼의 운영 주체와 참여 대상

-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와 빠띠 데모스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필요한 안건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면 서울시가 이에 응답하는 양방향 소통 형태를 갖춤
- **(정부)** 서울시는 정책과 관련된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플랫폼에 제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제안 내용 중 많은 공감을 얻는 안건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 **(시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접수된 제안을 살피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명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후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에 참여

■ 플랫폼의 기능과 구성요소

- 민주주의 서울은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과 논의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플랫폼 내에서 서울시민회의, 시민참여예산 등의 시민참여제도를 소개
  -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시민참여 기능을 ❶시민제안(자유제안), ❷시민토론(높은 공감을 받은 제안에 대해 논의), ❸서울시가 묻습니다(시의 제안에 대한 시민 응답)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시민제안'과 '시민토론'은 서로 연계된 구조
- **(시민제안)** 누구나 '시민제안' 기능을 통해 간략한 설명을 적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미 제안된 내용에 공감한다면 공감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통해 의견제시 가능

그림 12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목록



출처: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https://democracy.seoul.go.kr/front/allSuggest/list.do (2012년 12월 13일 검색).

- **(시민토론)** '시민제안'에서 제안된 내용이 100명 이상의 시민에게 공감을 받는 경우 일정 단계를 거쳐 해당 제안에 대한 공론장이 열리게 되며, 시민들은 '시민토론'에 게시된 공론장에 참여하여 투표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제시[16]
- **(서울시가 묻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정 정책에 대한 쟁점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한 온라인 공론장을 열고, 시민들은 공론장에 참여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견제시[17]

표 8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에 게시된 주요 정책제안과 정책 반영 결과

제안 제목	참여 방법	참여 및 정책 반영 결과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 온라인 찬반 투표 진행 • 오프라인 시민 간담회 개최	• 5,147명 중 5,007명 찬성 • 서울시 난임 정책에 반영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 온라인 찬반 투표 진행 • 시민토론 참여부스 운영 • 오프라인 열린토론회 개최	• 5,250명 중 5,097명 찬성 •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마련 등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 온라인 토론(의견제시)	• 1,188건의 의견제시 • 공공재활병원 실천 계획 마련 등
어린이대공원 일부 공간(팔각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온라인 토론(의견제시)	• 1,626건의 의견제시 • 동요체험 등 복합체험공간 조성
처치곤란 아이스팩 어떡하지?	• 온라인 토론(의견제시)	• 1,520건의 의견제시 • 아이스팩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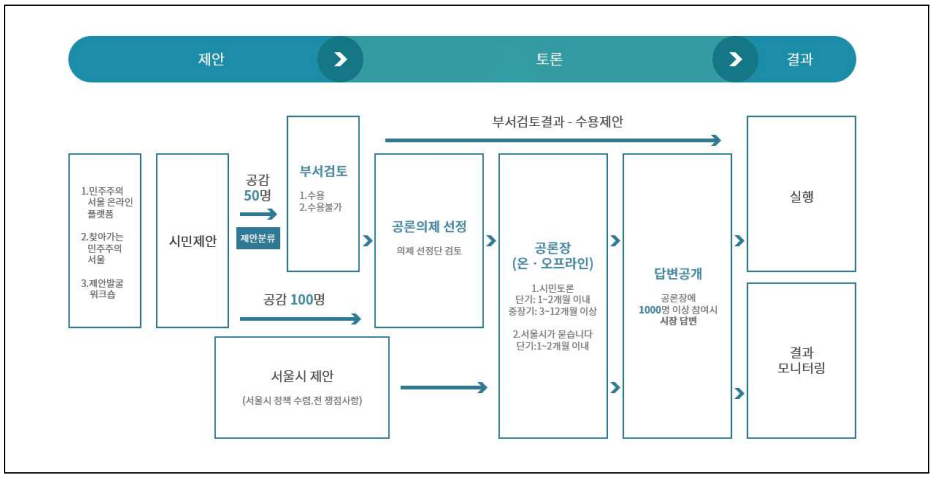
출처: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https://democracy.seoul.go.kr/front/discussion/discussion_list.do, 2021년 12월 13일 검색).

■ 시민 제안 및 의견의 반영 절차

- **(논의 안건 제안)** '시민제안'을 통한 의견제시 → (50명 이상 공감) 부서 사전 검토 → (100명 이상 공감) 의제선정단 검토 후 '시민토론' 공론장 개설 → 30일 이상 온라인 토론(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토론 병행) → 서울시에서 정책 결정 결과 공개[18]
  - 이때, 의제선정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공론화 여부, 방향, 방식 결정)'과 시민들로 구성된 '선정단(토론을 통한 공론화 의제 선정)'으로 구성
-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시민제안'의 제안, '시민토론' 또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론장에 공감 또는 투표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면 서울시에서 종합하여 정책 결정 시 반영

16)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tro/faq/induList.do (2012년 12월 13일 검색).
17)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tro/faq/induList.do (2012년 12월 13일 검색).
18)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tro/faq/induList.do (2012년 12월 13일 검색).

그림 13 민주주의 서울의 정책 제안 반영 절차



출처: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tro/faq/induList.do (2012년 12월 13일 검색).

3) 성과 및 한계

■ 플랫폼 운영의 성과

- 민주주의 서울에는 2021년 12월 현재까지 1만 63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중 473건에 대해 부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42건은 공론 후 정책 결과가 도출되는 등[19] 서울시와 시민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성과를 도출
- 2018년에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 기업 및 단체에 수여되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 주관 '&Award(앤어워드)'를 수상(김지수·김건위 2020, 120)

■ 플랫폼 운영의 한계

- 간결한 기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어 어려움 없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며 논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유휴공간 활용, 도시계획시설 설치,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안되기는 하지만 단편적으로만 다뤄진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수준이 제한적

19)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 (2012년 12월 13일 검색)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04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상

사례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 이 페이퍼에서는 국내·외 사례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특성과 성과 및 한계를 종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참여 플랫폼의 형태를 논하고자 함

표 9 온라인 참여 플랫폼 사례 검토의 종합

구분	정보제공		정책제안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 토지이용 정보 포털	서울도시계획포털	데시딤 바르셀로나	민주주의 서울
도입 배경과 목적	• 기술 발전에 맞춘 도시계획 지원 도구 개발 • 이를 개방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정보제공	• 효율적 업무를 위한 계획정보시스템 개발 • 민주사회에 맞춘 시민 대상 계획정보제공	• 민주주의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공공 행정에 온라인 플랫폼 도입	•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협동조합 빠띠와 서울시가 공동 개발
운영 체계	• 뉴욕시에서 정보제공 • 시민은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고, 회의 및 공식 창구에서 의견제시	• 서울시에서 정보제공, 의견청취 수행 • 시민은 플랫폼 정보를 토대로 이슈를 접하고 의견제시 기능 활용	•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 의견수렴 • 시민은 참여자로 등록하여 참여 활동 수행	• 서울시와 빠띠가 함께 운영하고 관계 부서가 시민 제안에 응답 • 시민은 실명인증 후 정책 제안 및 의견제시
주요 기능	• 커뮤니티별 정보제공 – 지표, 건설환경, 범람원, 커뮤니티 보드, 프로젝트, 자료 등 • 토지이용 사업 정보제공 – 사업명칭, 설명, 위치, 진행단계, 관련 문서 등	• (정보제공)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 정보와 관련 문서 제공 • (의견청취) 의견청취 절차가 필수인 안건에 대한 온라인 의견제시 기능 제공	• (참여프로세스) 특정한 안건에 대해 투표, 정책 제안, 토론 등이 가능한 공론장 형성 • (참여기관) 관계기관의 상설 소통채널(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운영	• (시민 제안) 필요한 정책 제안 기능 제공 • (시민토론 및 서울시가 묻습니다) 높은 공감을 받은 시민 제안 또는 시의 제안에 대한 공론장 형성
성과와 한계	•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제공 방식 • 정보제공에 충실할 뿐 참여로의 연계는 미흡	• 계획 정보와 의견작성 기능을 한 번에 제공 •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정보제공	• 도시계획 등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참여 가능 • 전체 인구에 비해 참여 수가 적다는 한계	• 시와 시민의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 •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부족

출처: 저자 작성.

■ **(정보제공)** 뉴욕시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제공 플랫폼을 검토했으며, 뉴욕시는 사용자 친화적인 도시계획 정보제공, 서울시는 정보제공 외 의견제시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

- 뉴욕시의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은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시민들은 이를 통해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능
  - 특히, 뉴욕시는 커뮤니티 단위의 참여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커뮤니티별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시민참여에 적합
  - 다만, 계획이나 사업 지원 차원에서 정보제공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 수단은 다소 부족
- 서울도시계획포털은 도시계획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온라인 참여 창구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형태를 갖춤
  - 다만, 도시계획 정보가 대부분 행정문서(고시문 형태)로 제공되고, 각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의견수렴과 심의 절차 및 결과 등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이슈를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는 다소 어려움

■ **(정책제안)** 바르셀로나시와 서울시의 정책제안 플랫폼을 검토했으며, 바르셀로나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서울시는 자유로운 제안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

- 바르셀로나시의 데시딤 바르셀로나는 특정 안건에 대한 투표, 제안, 온라인 및 대면 토론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민주적 정책 결정을 유도
  - 특히, 바르셀로나시는 PAM와 PAD를 비롯한 주요 도시계획·정책 결정 시 플랫폼 내 참여 프로세스 수행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시민참여 활성화에 유리
-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시 역시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실현
  - 다만, 시민들이 제안하는 단편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므로 특정 부문이나 특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정책 시행 이후의 모니터링 기능도 부재

■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참여의 전제조건인 정보제공 기능은 물론이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 기능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중요

- **(정보제공 측면)** 시민들이 계획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창구를 마련하는 것 필요
  - 뉴욕 사례와 같이 계획 및 정책의 추진 단계를 제시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상세한 설명과 위원회 심의 결과 등 관련 문서들을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시간·비용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의견작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부가하는 것도 고려

- **(정책제안 측면)**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이디어 또는 우선순위 결정이 요구된다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형성할 필요
  - 바르셀로나 사례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이나 유휴부지 활용 같은 안건은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공론장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 과정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결정 이후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것이 적합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운영 방안

1)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방안 모색

■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형태 구상

-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 정보공유와 정책 논의가 가능한 플랫폼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으로 도시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플랫폼의 모색 필요
  - 현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토지이음(의견제시 기능 시범 운영 중)'과 '서울도시계획포털'과 같은 도시계획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은 도시계획 정보와 더불어 최소한의 의견제시 기능을 제공
  - 최근에는 지자체 차원의 참여 플랫폼도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은 시민참여예산과 같은 행정 참여제도에 초점을 두거나 일상적인 정책 제안 기능에 머무는 실정
- 앞서 언급하였듯 도시계획 참여 플랫폼은 충실한 정보제공 기능을 갖추고, 정책제안과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통한 숙의가 가능한 공론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시민참여의 기본은 정보제공이고, 특히 도시계획 분야의 경우 특정 계획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려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동시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방안 결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을 정비하여 필요한 기능을 부가하거나,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가능
- **(대안 1)** 기존 정보제공 또는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확장
  - '서울도시계획포털'이나 '토지이음'과 같이 시민참여 창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참여의 가장 낮은 수준인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시민과

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한 공론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확장할 필요
- 또는 정보제공 플랫폼에는 현재와 같이 최소한의 법·제도 기반 의견수렴 기능만 두고 '민주주의 서울'과 같은 정책제안 플랫폼에서 시민 모두의 논의가 필요한 도시계획 안건을 공론 주제로 제시하여 자유로운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두 가지 방식 모두 뉴욕시 사례와 같이 정보제공의 수준을 높이고, 바르셀로나 사례와 같이 공론화 대상과 방안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대안 2) 새로운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개설
- 지자체 차원에서 정보제공과 정책제안 기능을 모두 갖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바람직
- 상세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도시계획 정보제공 기능과 특정 계획 및 정책에 대한 공론 기능을 갖춘다면 시민참여의 편의성과 효과성 확보 가능
- 다만, 현재의 정보제공 플랫폼을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므로 기존의 플랫폼과 새로운 참여 플랫폼을 적절히 연계하는 것도 고려

2)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기능 및 구성요소 설정

■ 정보제공 측면의 플랫폼 기능 및 구성요소

• 도시계획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 진행 절차에 맞춰 의견제출 기능 제공
- 서울도시계획포털과 같이 주요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 중인 계획 및 사업의 경우 뉴욕시의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과 같이 추진 단계를 보여주며 관련 정보와 문서 등을 제공
- 이때, 관련 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안건(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등)들은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 제공

■ 정책제안 측면의 플랫폼 기능 및 구성요소

• 국토계획법 등의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주민의견청취 절차 외에도 지자체가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계획과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도록 공론장 기능 제공
-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미래상 및 전략 등), 도시관리계획(특정 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재생(계획 내용 및 공간 활용 등), 주요 도시정책 등을 공론 대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제안, 의견제시 등의 기능 제공
- 이 외에도 시민이 직접 계획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공론장을 개설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기능 마련

■ 현행 도시계획 참여제도를 고려하여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능을 〈표 10〉과 같이 구상

표 10 도시계획 참여제도 유형별 플랫폼 기능 구상(예시)

구분	현행 참여제도(법정·비법정)	플랫폼상의 기능 구상
❶ 계획 수립 시의 직접 참여	• 이슈 및 미래상 등 설문조사 • 도시기본계획 주민계획단	• (정책제안) 지자체가 안건을 제안하고 논의 진행
❷ 계획에 대한 제안	• 구역 지정 및 계획 입안 제안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 주민공모	• (정책제안) 지자체 또는 시민이 안건을 제안하고 논의 진행
❸ 공개 정보에 대한 의견제시	• 공청회 • 공람 및 의견청취 • 주민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 (정보제공) 지자체가 계획 정보를 제공하면 시민들이 의견제출

출처: 저자 작성.

3)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운영체계 및 참여 방법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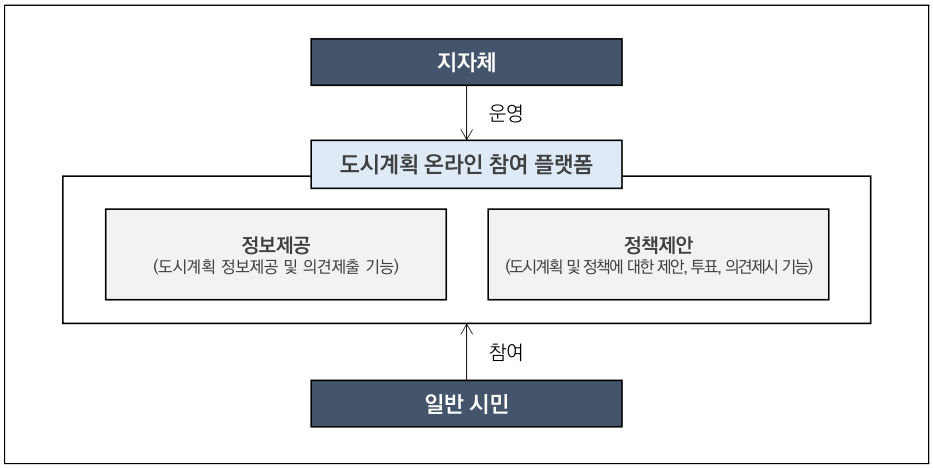
■ 플랫폼 운영 주체 및 활용 대상 설정

- **(운영 주체)** 도시계획 권한을 고려했을 때 참여 플랫폼은 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청취하여 응답하는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 **(활용 대상)** 일반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되, 지자체의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은 해당 내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플랫폼 내에서의 시민참여 방법과 시행 구조

- **(의견제출)** 지자체에서 제공한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 등의 도시계획 정보에 대해 법·제도에 규정(주민의견청취)된 대로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지자체가 응답하는 구조
- **(정책제안)** 지자체 또는 시민이 특정 안건을 제안하면 공론장을 개설하고 논의 진행
  - 기본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시민들과 논의하여야 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론장을 개설하고 투표·제안·토론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후 종합
  - 시민이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1차) → 공론화 필요성 판단(2차) → 논의 기간 및 방식 결정(3차)'을 거쳐 논의 진행, 이 과정을 지원할 위원회 등의 운영 고려
  - 또한, 안건별 참여자 범위와 정책화를 위한 적정 참여 규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

그림 14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운영체계와 주요 기능(예시)



출처: 저자 작성.

■ 플랫폼 운영 관련 고려사항

- 기존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사례들을 보면 참여하는 시민이 적고 이용률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계획 참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야 함
- 참여 플랫폼 구축 후에도 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 나은 정보제공 기능과 참여 환경을 갖추기 위한 개선을 지속해야 함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시계획 정보는 수시로 갱신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고, 의견제시나 정책제안 등 시민참여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안내하여 적정 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한편,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는 좋은 수단이지만 충분한 숙의 진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시딤 바르셀로나, 민주주의 서울과 같이 대면형 참여 수단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도시계획과 같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온라인 참여만으로는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회의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05 요약 및 정책제언

- **(논의 배경)**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사회·기술적 발전에 따라 시민참여의 역할과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어 최근에는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민참여의 주요 도구로 부상
- **(플랫폼 필요성)** 맞춤형 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참여제도는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참여방안이 경직적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 존재.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접근이 쉽고 시민-공공 양방향 소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도입 가능
- **(사례 검토)** 뉴욕과 서울의 도시계획 정보제공 플랫폼 사례, 바르셀로나와 서울의 정책제안 플랫폼 사례를 각각 검토. 뉴욕시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상세한 도시계획 정보제공,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은 도시계획 정보의 종합적 제공과 의견제시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 바르셀로나시 '데시딤 바르셀로나'는 특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논의,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과 시민-공공 양방향 소통이 특징
- **(시사점)** 도시계획 참여 플랫폼은 참여의 전제조건인 정보제공 기능과 함께 시민들, 시민-공공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제안·의견제시 기능을 적절히 갖추어야 함. 계획 및 정책의 진행 상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도록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 **(플랫폼 구축·운영)**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에 필요 기능을 부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유형과 안건에 맞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효성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기능과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
- **(향후 연구)** 도시계획 시민참여의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이므로 참여제도 개선과 더불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실증적 연구 필요

참고문헌

강윤재. 2020.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지역사회학 21권, 3호: 75-104.

김도영·신은지. 2017.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개발.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김봉철. 2021.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2회 학술대회 발제논문.

김지수·김건위. 2020. 주민참여 플랫폼 개선방안 연구: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찬동·이정용. 2014.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안용준·이상호·유명옥·정경석·염인섭·지남석·김애림. 2018. 시민참여기반의 스마트시티 모델 정립.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양재섭·김태현. 2011.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윤상진. 2019. 승강장에서 SNS까지,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월간참여사회 2019년 5월호.

이다예·최정윤·김중은·서형주. 2021.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이승종. 1997. 주민참여제도의 확충방안. 고시계 42권, 12호: 138-150.

이태희. 2015. 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의 의미와 정책 내 반영실태에 관한 고찰: 영국의 New Deal for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86권: 139-159.

황현숙·정승구·김연수·오인영. 2020.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웹서비스 설계 연구. 경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Ajuntament de Barcelona. 2019a. Informe 2016-2019: Decidim, la plataforma digital oberta i lliure per la participació i la innovació democràtica.

_____. 2019b. Guies pràctiques de la participació ciutadana a Barcelona: Els processos participatius.

Arnstein,S.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35, 4: 216-224.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OECD Handbook on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eña-López,I. 2017.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Rise of The Open Source City in Spain.

Reglament de Participació Ciutadana (바르셀로나 시민참여규정). 2017.

Smith,A. and Martin,P.P. 2020. Going Beyond the Smart City? Implementing Technopolitical Platforms for Urban Democracy in Madrid and Barcelona. *Journal of Urban Technology* Vol.28, 1-2: 311-330.

[검색자료]

가치더함. https://www.jejudsi.kr (2021년 12월 16일 검색).

경기도의 소리. https://vog.gg.go.kr (2021년 12월 16일 검색).

경남1번가. https://www.gyeongnam.go.kr/gn1st (2021년 12월 16일 검색).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2021년 12월 16일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go.kr (2021년 10월 27일 검색).

대전시스. https://www.daejeon.go.kr/seesaw (2021년 12월 16일 검색).

만사형통충남. https://10004.chungnam.go.kr (2021년 12월 16일 검색).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 (2021년 12월 13일 검색).

바로소통광주. https://barosotong.gwangju.go.kr (2021년 12월 16일 검색).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https://medium.com/parti-xyz-developers (2021년 12월 14일 검색).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2021년 12월 12일 검색).

서울 정책아카이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설명글. https://seoulsolution.kr (2021년 12월 12일 검색).

소통인전남. https://sotongin.jeonnam.go.kr (2021년 12월 16일 검색).

시민 다듬이방. https://www.ulsan.go.kr/dadeumibang (2021년 12월 16일 검색).

인천은소통e가득. https://www.incheon.go.kr/cool (2021년 12월 16일 검색).

전북 소통대로. https://policy.jb.go.kr (2021년 12월 16일 검색).

토크대구. https://talk.daegu.go.kr (2021년 12월 16일 검색).

Community District Profile. https://communityprofiles.planning.nyc.gov (2021년 12월 10일 검색).

Decide Madrid. https://www.decide.madrid.es (2021년 12월 7일 검색),

Decidim Barcelona. https://www.decidim.bardelona (2021년 12월 7일 검색).

IAP2(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https://www.iap2.org/page/pillars (2021년 10월 25일 검색).

NYC Planning. https://www.goodurbandesign.nyc (2021년 12월 10일 검색).

NYC Planning Digital. https://medium.com/nyc-planning-digital (2021년 12월 11일 검색).

NYC Planning LABS. https://labs.planning.nyc.gov (2021년 12월 10일 검색).

Projecte Normatiu Reglament de Participació Ciutadana (바르셀로나 시민참여규정 개정안, 2021). https://ajbcn-decidim-barcelona.s3.amazonaws.com/decidim-barcelona/uploads/decidim/attachment/file/12496/Cap%C3%ADtol_8.pdf (2021년 12월 9일 검색).

ZAP. https://zap.planning.nyc.gov (2021년 12월 10일 검색).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등 국토분야 이론이나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1-23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

정보제공 및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 구 진 이다예
발 행 일 2021년 12월 28일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 페 이 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KRIHS
국토연구원